

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賢祖實錄探險

양촌陽村, 충재沖齋, 갈산葛山, 해은海隱 시詩로 역사를 증명하다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운공파화장

시詩 한 수에 잊힐뻔한 사료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1. 신라新羅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伊昔赫居世 이석혁거세 까마득한 옛날 박혁거세가
開邦五鳳年 개방오봉년 오봉 원년에 나라를 열었습니다.
相傳千歲久 상전천세구 천년 동안 오랜 왕위를 전승하다
粗保一隅偏 조보일우편 겨우 한쪽 구석의 땅을 보전하셨지요.
却獻雞林土 각헌계림토 계림의 땅을 고려에 바친 이후
來朝鵲嶺天 내조곡령천 곡령 하늘 아래 조회 하였습니다.
綿綿三姓祀 면면삼성사 한 가락 이어져 온 셋 왕성의 제사마저
永絶正堪憐 영절정감련 영원히 끊어져 참으로 애달습니다.

〈해설〉 이 시는 중국 황제의 명(제명制命)에 응답하여 지은 응제시(應制詩)의 한 수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표전(表箋)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나라에 간 권근(權近)에게 어제시(御製詩) 3수의 직접 지어주고 시詩를 지으라고 명한다. 양촌陽村은 먼저 8수를 짓고(1396년 9월15일), 9월 22일 명에 의해 10수(명제십수命題十首)를 지어 바치며, 10월 27일 명을 받아 6수를 지어 총 24수를 짓는다. 신라新羅를 주제로 한 이 시詩는 응제시(應制詩)의 한 수다. 양촌집(陽村集) 명제십수(命題十首)에 실려 있다.
기원전 57년에 개국한 신라新羅는 천년 사직을 지켜왔지만 그 영토는 한 모퉁이에 지나지 않았으며 곡령, 곧 고려의 천지가 되고 제사마저 끊어져 안타깝다고 읊었다. 경주(慶州) 삼전(三殿, 박석,김씨를 모시는 곳)이 고려부터 존재했음을 이 시詩가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영묘사 화재 소식을 듣고 충재(沖齋) 권번(權璣, 1478~1458)

八百年餘佛殿災 팔백년여불전재 팔백여 년의 절집이 불에 타버리니
東京舊物返黃埃 동경구물반황애 동경 옛 유물에 먼지만 뿌영게 인다.
人言吾道從茲滅 인언오도종자성 오도가 이로써 융성을 말하지만
經閣如何亦共灰 경각이하역공회 경각은 어찌하여 잿터미가 되었는가?

〈해설〉 신라新羅 선덕여왕善德女王 1년(632)에 창건된 경주 영묘사에 세조 5년(1460) 봉덕사에 있었던 국보 성덕대왕 신종을 옮겨왔다. 군사를 모을 때마다 타종하다가 중종 2년(1507) 봉황대(경주시 중앙동) 아래로 다시 옮겼다. 그로부터 8년 후 중종 10년(1515) 도둑이 영묘사에 들었다가 불을 내고 말았는데 신종이 영묘사 종루에 걸려 있었으면 그 화를 입을 뻔했다. 영묘사는 지금의 흥륜사로 알려져 있다.
신종을 옮긴 8년 후 불이 난 사실이 이 한 수의 시로 밝혀졌다.
이 한 수의 시詩가 밝힌 것처럼 영묘사에 불이 나서 신종을 옮겼다는 말은 잘 못 전해진 사실이다. 봉화 닭실마을 청암정에서 이 시詩를 지었다.

3. 매월사에서 갈산(葛山) 권종락(權宗洛, 1745~1819)

來宿先祠前 래숙선생사 매월당 사당에서 하룻밤을 묵으니
窓前一樹梅 창전일수매 창가에 매화가 한그루 피었다.
月明山寂寂 월명산적적 달은 밝고 온 산은 적적한데
志士獨徘徊 지사독배회 지사는 잠 못 이루 서성거린다.

〈해설〉 갈산공(葛山公)은 홍경래 난 때 의병장으로 출사하려다 난이 끝나서 물러앉았던 의인(義人)이자 학문이 높았던 사대부(士大夫)였다. 갈산공(葛山公)은 단종 복위가 실패로 끝나고 피바람이 휩쓸던 날, 절명의 길을 택한 단종의 이모부(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가 곧 12대조(代祖)이었으니 같은 가치관을 지녔던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30)을 추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을 것이다.
매월당이 21살 때 북한산에서 공부를 하다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흘 동안 묵 놓아 통곡하고 방을 나오지 않았다. 서책을 불태워버리고 뒷간에서 오물을 뒤집어쓰고 나와 행려 승이 됐으며 그 때 지은 호가 설참(雪岑)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세조 11년(1465) 경주 서남산 자락 용장사에 정착, 6년간을 지내면서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저술하고 여러 편의 시詩를 남겼다. 서울로 간 뒤 경주의 선비들이 매월당이 머문 곳에 영당을 짓고 추모한 사실이 전해진다.

갈산공(葛山公)이 매월당 영당을 찾아 며칠 밤을 자고 시詩를 남김으로써 경주의 선비들이 매월당 영당을 두고 추모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라고찰(新羅古刹) 기림사(祇林寺) 매월당 영당에선 지금도 다례를 올린다.

4. 금장낙안(琴藏落雁) 해은(海隱) 권영도(權寧燾 1903~1991)

古琴藏上已藏琴 고금장이상금 옛 금장대 위에 거문고 숨겨두었는데
江畔雁踪化石沈 강반안종화석침 강가 기러기 발자취에 돌로 변해 문혔다.
雲物無窮城樹老 운물무궁성수로 무궁한 경치 속에 성곽 나무는 늙었고
風光不沒野烟深 풍광불야연심 풍광은 깊은 들녘에 인몰되지 않았구나.
世傳百結仙翁事 세전백결선옹사 백결선생의 사적이라는 말 전해오나
水誦千年舊國音 수송천년구국음 물소리는 천년 고국의 소리 전한다.
荒臺南北平沙外 황대남북평사외 황량한 누대 앞 넓적한 모래밭에
白鷺時回上下尋 백로시회상하심 해오라기 이따금 저절로 찾아든다.

〈해설〉 경주 형산강 하류에 금장사(金藏寺)와 금장대(金丈臺)가 있다.
기러기가 지나다가 자연 경치에 취해 내려앉았다고 한다. 또한 이 시에는 금장대 설화를 달리 풀이한 글이 있어서 주목된다. 본디 금장대의 ‘금장’은 금장(金藏), 금장(金丈)으로 쓰고 있으나, 그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삼국사기’ 열전(列傳)에, 신라 백결선생은 가난 하지만 거문고를 즐겨 탔다. 그가 죽은 후 거문고를 이곳 금장대 위에 숨겨두었는데, 기러기가 날아와서 이를 밟고 기러기의 분변이 쌓여 거문고는 화석이 되었다.

이로써 금장(金藏), 금장(金丈) 대신 금장낙안(琴藏落雁)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해은(海隱) 시인의 시詩 한편으로 백결선생과 연결된 천년이 훌쩍 넘는 역사적 사료가 밝혀졌다. 신라인들이 금장대(金藏臺)를 금장대(琴藏臺)라고 불렀다는 새로운 사실이 처음으로 고증됐다.

경주(慶州)나 평양(平壤) 공주(公州) 등 역사의 향기가 서린 곳엔 예부터 시인(詩人) 묵객(墨客,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이다. 관산을 통해 아름다운 풍광에 취하고 깊은 비감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고 문헌 역사적 자취를 쫓다가 하루 해를 보내면서 몇 줄의 짧은 시詩나 글씨 그림 통해 흔적을 남겼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천년고도 경주만큼 시문(詩文)의 무대가 된 곳은 흔치않다.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 권문(權門)의 선대(先代)들에 의해 확인되어서 의미가 더 깊다.

〈자료출처: 조철제 경주, 한시로 읽다 / 갈산집葛山集/ 권영도權寧燾 저著 해은시집海隱詩集〉

강릉 호해정



권진복 박사
추밀공파, 36세, 강원한문연구소

66세 노인은 인제에서 출발하여 미시령을 넘었다. 바다를 따라 내려오는데 경포호가 발길을 잡는다. 특히 호해정(湖海亭)이 마음에 들었다. 노년을 보낼 만했다. 1718년에 아들 양겸(養謙)에게 편지를 쓴다. “경포호 가운데 있는 조도(鳥島), 경포호의 안개와 연기가 만나는 경치는 더욱 기이하구나! 거기다가 사람들이 머물기를 권하니, 정성스런 마음을 거절할 수 없구나”
노인은 호해정에 머물면서 학문과 시문을 강론했었다. 틈틈이 경포호에 배를 띄우고 흥에 겨우면 시를 읊었다. ‘호정잡음(湖亭雜吟)’에 지금은 사라진 호해정 앞 경포호가 넘실거린다.

옛날 홍장이 머문 이 호수 / 紅粧舊臨水
바위엔 아직 풍류 남았네 / 片石尙風流
늪은이 온갖 상념 사라져 / 老夫灰萬念
흥겨움 없어도 배에 머무네 / 無興駐扁舟

세속적 욕망이 사라진 노인의 편안한 얼굴이 보인다. 시비를 잊고 망연히 배에 앉은 모습도 보인다. 기쁨과 슬픔의 경계를 넘은 듯 무심(無心)하다. 그렇게 한동안 김창흠(金昌翕, 1653~1722)은 호해정에서 유유자적하였다.
1750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폐허가 되었다. 주인은 김창흠의 유적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여 정자를 새로 짓고, 민우수(閔遇洙, 1694~1756)는 「호해정기」를 짓는다. 「호해정기」는 곧바로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려워한다.【觀於海者難爲水】” 무슨 의미일까. 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바다를 본 사람은 시냇가에서만 는 사람들 앞에서 물에 관하여 말하기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경포대는 큰 바다 부근에서 자체로 하나의 구역을 형성하여 바다와 접하지 않은 데도 승경이 빼어나고 훌륭한하여 이에 짝할 만한 게 없다. 동해가 참으로 장관이기는 하지만, 경포대가 없다면 동해의 승경은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호해정은 경포대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경포대에서 보면 호해정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호해정에서 보면 경포대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경포호를 내호(內湖)와 외호(外湖)로 구분하는데 각각 그 승경을 독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해를 보는 자가 장관이 동해에만 그친다고 여겨 경포대와 호해정의 승경을 아예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인의 문화에 노닌



〈김홍도, 호해정〉

자가 그저 성인의 말만 듣고 천하에 또한 사람들의 범이 될 만한 정언(精言)과 묘론(妙論)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1778년엔 김홍도가 김응환과 함께 이곳에 들려 화폭에 담았다. 호해정과 매립되기 전의 경포호의 물결,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배가 흔들거린다. 송환기가 찾았을 때는 1781년 8월이었다. 저물 녘에 경포호에 배를 띄웠다. 물결이 잔잔하여 즐길 만했다. 북쪽 언덕에 호해정이 있는데 소나무와 단풍나무 사이에서 은은히 비친다. 노를 저어 배를 대려고 하는데 어둑한 빛이 밀려와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서둘러 가자고 보낸다.
홍장암에서 인월사를 지나 좁은 길을 따라가니 호해정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굵은 배롱나무가 임구를 지키다. 정자의 전면에는 초서체 ‘호해정’과 측면에 해서체



〈호해정〉

‘호해정’ 편액이 걸려있다. 정자 뒤로 호위하는 듯 노승들이 늪름하다. 처마 밑에서 앞을 바라보니 삼전벽해다. 매립되어 발이 되거나 주춧이 드러선지 오래다. 눈을 감고 김창흠의 시를 읊조리니 다시 호수에 물이 가득하다.
물결에 어리비친 옛 모습 보니 / 波心匿影尙殘城
어찌 옛날 감회가 없을 수 있나 / 何限臨湖感古情
다툼에 기댈 곳 없어 시루봉에 서니 / 轡觸無憑龜山立
갈매기 오리와 벗하고 풀은 정자 덮었네 / 鷗 有伴草亭成
하루 종일 안개구름에 시 지을 만하고 / 烟雲曉夕詩將化
하늘과 못이 드리우니 역리가 조화롭네 / 天澤寧低易亦行
물고기를 잊으니 물고기는 물가에 있고 / 已忘忘魚魚在渚
낙시 배는 비어있고 달빛만 가득 / 釣艇虛受月光明

공직자 국가관이 곧 국가안보



권대봉 중부대학교 총장

미군 철수로 탈레반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전복되자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377명이 한국 정부에 기여한 자력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캠퍼스에 입소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1835년에 그의 저서 ‘미국 민주주의’에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썼다.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1811년 러시아 헌법 제정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인지 아닌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미군 철수가 결정되자 46년 전의 베트남처럼 평화협정은 휴지 조각이 됐고,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수중에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부패하고, 공직자의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해 사상적으로 적에게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사상적으로 적에게 점령당한 정부를 지탱해주기 위해 미국이 국민세금을 써가며 젊은 군인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미국 국익과 배치된다고 판단해 미군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는 물론 국민의 국가관이 빠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적의 수중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다.

21년도 전주·완주종친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여

전주·완주종친회는 2021년도 장학생 신청을 도내 대학 및 종친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지난 8월 31일 마감한 결과 2명이 신청하여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7일 장학위원장(현 권이수 회장), 부위원장 권오신 고문 외 장학위원 7명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한 결과 전주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권도혁(북야공파, 36세) 학생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다른 학생은 자격 기준 미달로 탈락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권이수 장학위원장은 9월 28일 거행된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에서 “오늘 2021년도 종친회 장학금을 받은 권도혁 학생은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타의 모범이 되고 성실성으로 성적도 우수하여 장학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발되어 오늘 종친회 회원님들과 함께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권도혁 학생은 앞으로 전주·완주종친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더



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완주종친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오고 계시는 권오신 고문님, 권태주 고문님, 권병수 수석부회장과 그리고 항상 종친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전주·완주종친회는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 발전은 물론 종친회 발전과 적극적인 참여회 회원님들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권영춘 전주·완주종친회 총무이사